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최현실\*

###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5년 3월 2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3~4차에 걸쳐 학사지도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유학생의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나타내었던 사례들을 근거이론의 방법을 통해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도출하고, 상황모형을 전개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한 범주가 나타났다.

첫 번째 범주는 한국의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집단은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대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 언어장벽, 소통의 장벽 속에 갇히거나, 무기력의 연속 상태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로움에 대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학생에 비해 베트남 학생은 가족 및 친인척이 함께 유학을 하여 초기부터 심리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원활한 대학생활을 유지하거나, 대학생활에서도 친구 선후배 간의 관계가 매우 잘 형성되어 있어 대학생활의 초기 적응에서 느끼는 낯섬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범주는 한국의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집단에서는 학비 및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적게 받거나, 학교의 외국인 장학제도(TOPIK 급수와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외국인학생 등록금의 혜택이 많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는 학생들이었다. 이들 학생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제반 제도를 익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장학금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범주는 한국의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분명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 이들 외국인 유학생들은 부모에게서 경제적 으로나 심리적으로 독립을 준비하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기계발을 하는 특징이 보인다.

**[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 근거이론, 학사지도 면담, 범주

\* 주저자: 최현실(E-mail: naradhus@naver.com)  
학위취득대학 : 부산대학교 정치학박사/사회복지학박사  
현직: 동국대학교 학사지도부 초빙교수

논문접수일: 2018년 10월 2일, 논문수정일: 2018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18년 10월 23일

#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Foreign Students to Korean Universities

Choi, Hyeon-Sil

## <Abstract>

In this study, we found cases that showed active adaptation to college life from interviews of international students during the academic advising interview process from March 2, 2015 to September 28, 2018. Foreign students were interviewed three or four times.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were derived through the method of grounding theory, and a situation model was developed. There are three main categories of foreign students who are good at adapting to college life. The first category is a group that is well suited to college life in Korea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the language barrier, a problem common to most foreign students. Students in this group are actively trying to respond and do not fall into a continuous state of lethargy and loneliness. In particular, compared to Chinese students, Vietnamese students studying with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have a psychological stability from the beginning, maintaining a good college life and good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other college students and thus overcoming feelings of strangeness and loneliness. The second category of students well adapted to Korean college life are individuals less likely to be economically burdened with tuition and living expenses, often due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school's foreign scholarship system (i.e., students with higher TOPIK scores and school grades). In their quest to overcome the economic burden, these students are not only acquainted with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school system, but are also trying out for various scholarships open to international students. The third category of foreign students who adapt well to university life in Korea engage in activities reflecting their desired goals. Due to their clear goal consciousness they are better prepared for economic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goal-oriented self-development.

**[Keywords]** *Foreign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Grounded theory, academic advising interview, category*

## I. 서론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까지 16000명 정도였으나, 2005년부터 중국인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이 늘어나면서 증가 되었다. 2014년 부터는 베트남 학생의 양적인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12년 84711, 2013년 81847, 2014년 86,410, 2015년 96,357, 2016년 115,927, 2017년 123,168, 2018년도 8월 188,910 명이다<sup>1)</sup>. 2018 8월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중 중국인은 61,482명, 베트남인은 11456명, 우즈베키스탄 4,928명, 몽골 4,532명, 필리핀 621명, 타이 531명 등으로 아시아 출신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각국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열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16년 58개국 174개 곳에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유학시장의 규모가 증가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관리를 위해 2009년 9월 유학생의 최소 수학요건과 대학의 이행사항을 명시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여 유학생 선발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의 상태와 관리는 학교마다 차이가 나타나며, 일부 유학생 중에는 한국어를 습득하지 못한 채 입학하여 교과목을 수강하는데 난제를 드러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유학생의 풍속도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대학마다 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관리의 차이가 상이하하다. 예를 들면, 경주에 있는 D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범위가 중국인이 주를 이루던 것에서 다른 아시아국가 출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출신이 증가했다. 이 글은 2016년도 이후 경주 D대학의 사례를 통하여 유학생 배출국에 따른 다양한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현상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유학생은 중국과 베트남 유학생들이 주를 이루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도 등 다양한 아시아 지역출신들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출신 유학생은 경제적으로 서로 간에 차이가 있어, 출신 집안에 경제적 여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출신 집안의 경제적 보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거의 자력으로 학업과 생활을 꾸려가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들 중국과 베트남 유학생은 미시적인 개인적 행태에서 경제적 배경과 언어능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 가운데는 유학의 기본자격이 되는 한국어학능력(TOPIK) 3급에 실제로 미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학업과정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나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현실적으로 대학에 적응을 두고 있다. 그들 가운데서도 노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형편이 더욱 열악하다.

그런데 이런 이들 가운데서도 사회적 유대의 유무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즉, 한국어가 미숙할 때는 자연스럽게 학교생활 적응도나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감이 떨어

1)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9월호,

[http://www.moj.go.kr/doc\\_html/viewer/skin/doc.html?fn=bd2c20f42f438c28690ea844e7a82840&rs=/doc\\_html/viewer/result/2018/08\\_2018/09/20](http://www.moj.go.kr/doc_html/viewer/skin/doc.html?fn=bd2c20f42f438c28690ea844e7a82840&rs=/doc_html/viewer/result/2018/08_2018/09/20).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해 온 경우나 친구, 애인의 유대가 형성되어 있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더 적극적으로 현실의 난관을 타개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D대학 외국인 전담반을 운영하는 동안 중국, 베트남, 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이 유학생생활에서 유학생들은 대체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만약 도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는가? 그리고 대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식주관련 생활용품, 음식, 병원, 수강신청, 레포트, 발표 및 시험준비)에 대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가? 또한, 가족 외에도 이성 및 동성 친구 등으로 부터 관심과 사랑, 이해와 격려 그리고 긍정과 적극성을 갖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질문하였다. 2015년-2018년 동안 적극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나타내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경험에서 주요 개념과 하위범주 그리고 총괄적인 범주를 도출하고자 하며, 상황모형을 전개하고자 한다.

## II.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학사지도(academic advising) 면담과정에서 이루어진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함께 고려하여 진행되었다<sup>2)</sup>. 양적 데이터는 2015년 1학기에서 2018년 2학기까지 운영된 외국인 전담반의 총 627명을 대상으로 면담시 작성한 대학생활에서의 관심영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학사지도 면담은 공통교양 교과목을 운영하며 수업내용에서 필수요소로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다음의 수행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 면담은 일반적인 학사지도 면담으로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학사제도, 학교생활, 대학공부, 자기계발 및 진로, 정서의 6가지 분야에서 주요 주제에 따라 3개 이상의 영역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대학생활 적응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과 어려움 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2차면담은 한국의 유학생생활 특히 대학생활 전반에서 우수한 적응력을 보이는 집단과 가족, 친인척, 친구(이성 및 동성)의 관계망이 잘 형성되어 있는 연구 집단을 중심

---

2) 학사지도란 학생에게 필요한 학사 관련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 및 생애계획을 포함한 총체적 발달을 다루는 통합적인 지도 과정으로 동국대학교에서 2014년 1학기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즉, 학사지도는 학생의 학습과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수(teaching)의 한 형태로서, 학생들의 인생목표 및 그와 연계해서 의미 있는 학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학생들의 삶의 목표 탐색(exploration of life goals), 직업적 목표 탐색(exploration of vocational goals), 프로그램 선택(program choice), 과목선택(course choice), 과목계획(course scheduling)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으로 진행되었다. 2차 면담과정은 대상자와의 라포를 형성하며,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대학생활과 한국 유학생들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3차면담은 연구자가 2차면담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면담 대상자가 겪었던 경험과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느끼는 어려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질문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1차와 2차면담에서 면접 대상자가 답변한 내용들을 연구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함과 동시에 연구 참여자가 연구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표 1> D대학 학사지도 면담의 주요 내용

구분	학사지도면담	비고
면담 진행자	학사지도교수	-
면담 형태	학생 1:1 면담 (학생이 원할 경우 그룹도 가능)	
면담 장소	마음나눔면담실1, 2	-
면담 시간	약 30분	-
면담 진행 유형	· 1학기 : 대학생활 적응 · 2학기 : 대학생활 활용	처방적 학사지도 발달적 학사지도
주요 면담 내용	· 학사제도(수강신청, 계절학기, 전공선택, 봉사학점, 교직이수, 캠퍼스 간 이동 등) · 학교생활(대인관계, 경주적응, 기숙사/자취생활, 학내시설이용, 비교과활동 등) · 대학공부(공부방법, 시험준비, 보고서 작성, 독서, 외국어, 발표준비, 그룹학습 등) · 자기개발/진로(목표찾기, 시간관리, 진로계획, 흥미/적성 등)	· 전공 지도교수와 · 추가적으로 심층면담이 필요할 경우 학생상담센터와 교수학습개발센터와의 연계

<표 2> D대학교 학사지도 교과목의 주요 내용

<단위 : 명>

구분	교과목 수강인원	교수인원	강좌수	외국인 교과목	외국인 수강인원
2015학년 1학기	1,817	7	43	1	41
2015학년 2학기	1,705	7	44	2	91(47/44)
2016학년 1학기	1,721	7	42	2	89(44/45)
2016학년 2학기	1,582	7	42	2	87(44/43)
2017학년 1학기	1,748	7	42	2	87(42/45)
2017학년 2학기	1,627	7	43	2	78(44/34)
2018학년 1학기	1,756	7	43	2	90(31/59)
2018학년 2학기	1,615	7	43	2	64(42/22)

##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 양적 데이터를 이용하며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주요 요인의 관계적 속성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인간행위의 상호작용의 본질을 파악하고 개념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철학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근거이론을 채택하였다(Chenitz et al. 1986). 근거이론은 연구 대상자가 낯선 유학생생활에서 대학생활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며, 행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지를 밝히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Glaser B.G. 1978a; 2009b).

자료 분석은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bbin 1998)의 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방코딩(open coding)과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개념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였다. 개방코딩 과정은 자료로부터 이론이 정립되는 핵심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코딩작업을 거치면서 계속적인 비교분석을 하며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면담 자료들을 분해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하는 줄 단위 분석과정을 통해 개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비슷한 개념끼리 통합하는 범주화 작업을 통해 축코딩(axial coding)을 하였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도출한 범주들을 더 높은 범위의 명칭으로 그룹화 하는 단계이다. 축코딩에서 각 그룹은 특징에 따라 나누어 그룹끼리 비교하여 범주를 형성한다. 이 범주는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의미를 제공하고 이해를 높이며, 지식을 일반화한다. 분석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에서 발견된 범주에서 중심현상을 중심으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조건, 결과의 관계로 구조를 만들었다.

세 번째 단계는 축코딩에서 도출된 하위범주들을 토대로 비슷한 성향과 하위 범주를 하나의 범주로 묶고 범주를 더 큰 그룹으로 묶는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 본 연구현상의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추출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상황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주의한 점은, 외국인 학생들과의 언어소통에서 정확한 이해와 소통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현상과 관련이 없는 표현을 제거하고 구조적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대상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은 연구 질문이다.

연구문제1: 외국인 유학생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의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외국인 유학생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의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결과는 무엇인가?

연구문제3: 외국인 유학생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의 중심현상은 무엇인가?

연구문제4: 외국인 유학생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의 핵심범주화를

통해 나타난 상황모형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

### Ⅲ.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문헌고찰

#### 1.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기존 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초기 단계로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과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이다(노종희·이일용·유길한 2003). 이 과정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 원인 분석도 나타났다(박은경 2011)<sup>3)</sup>.

둘째는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의 지속성을 조장하기 위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이다(신하영 2011). 실제로 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학업을 포기하는 유학생들의 중도 탈락률도 10%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들은 한국어 능력과 학업성취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밝히며 한국어 수학능력을 높이는 교양과목의 개선에 대한 연구들로 발전하였다.

셋째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의 적응에 대한 정서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경향이다(박순영 2016, 75-102; 하재현·제혜금 2016, 7-32). 이들 연구 속에는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화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의 조절 및 매개효과를 분석(나동석·강석화 2010, 21-46)한 내용에서부터 기존의 한국어 강화교육이 학업성취도를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한국어 능력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 효과를 매개하는 매개효과가 존재하며, 태도요인이 매개효과가 됨을 시사하기도 한다(전요한·박지순 2016).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다수 기존 연구들은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집중하거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 중에 겪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거나(권은영 2010), 집중적인 교양학습과정을 제시하는(김경원·신영지 2014)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 2. 외국인 유학생의 정서 및 사회적 유대 연구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의 정서적 상태와 사회적 유대간의 관계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한국의 교육적 환경 내에서 학업요구에 의한 심리적 부담, 언어적인 장벽, 경제적인 불안, 문화적 또

3) 박은경은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에서 거시적 차원의 배출-흡인 요소보다는 미시적 차원의 배출-흡인요소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는 가치적 갈등, 향수병, 고정관념, 편견, 차별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Lewthwaite 1996).

하비와 메그너(Hovey & Magana 2010)가 제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원천으로서 언어적 어려움, 사회적, 재정적 자원의 부족, 외로움, 차별 등이 유학생들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갈등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유학중인 학생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보듯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문화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나동석·강석화 2010, 21-46).

유학생들의 대다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낯선 환경의 생활에 대한 문화적 충격의 해소와 언어·음식에 대한 문화 적응력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의사소통의 결핍으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베리(Berry 1997)는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적인 적응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적응을 모두 포함하여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 등으로 구분하였다(박순영 2016, 78).

2011년의 박은경의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이 미시적 차원의 개인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학생들의 한국어 구사능력과 한국인 친구 수의 다소가 대학 및 지역사회에서 적응에 용이한 것을 분석하였다. 즉, 지역의 적응과 대학생활의 적응에 거시적 배경과 개인의 행위적 차원이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분석은 유학생 개별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지만, 배출국에 따른 차이의 분석은 하지 않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개인적 측면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랑과 돌봄, 이해와 격려, 관심과 긍정 그리고 신뢰 등을 제공받길 희망한다. 동시에 사회적 측면에서는 대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의식주 관련 생활용품, 음식, 병원, 수강신청, 레포트, 발표 및 시험준비 등)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용이하게 하길 희망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개인적 적응 그리고 정서 및 사회적 유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유학생들의 어려움 혹은 극복이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적 배경 및 사회적 관계와 그리고 배출국의 국가적 특성에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하는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 3. 본 연구의 지향점

본 연구는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유학생의 풍속도가 중국인이 주를 이루던 것



에서 다른 아시아국가 출신 베트남 출신이 증가한 양상을 고려하여 2016년도 이후 경주 D대학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유학생 배출국에 따라 유학생 가운데서도 대학생활 적응에 다양한 현상이 발견된다는 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유학생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과 베트남 학생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연구하여 이들의 대학생활에서 경제적 배경, 사회적 관계, 정서 등 3가지 주요 관계망의 차이점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유학생들의 어려움 혹은 극복이 경제적 배경 및 사회적 관계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맥락적 특징으로 나누어 상황모형을 도출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직면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유학목적의 원활한 달성에 필요한 제 요소가 무엇인지를 효과적으로 도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서 주요하게 작용되는 요소를 찾아 적절한 교육정책과 지원 방향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표 3>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	성별	연령	국적	연계	한국어 능력	대학생활 적응의 특성/연계특성
연구참여자1	남	27	베트남	동거	3급	학업 및 향후 베트남으로 귀국 후 경제활동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학교생활을 함(현지연계)
연구참여자2	여	24	베트남	동거	3급	학업 및 향후 베트남으로 귀국 후 경제활동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학교생활을 함(현지연계)
연구참여자3	남	26	베트남	무	5급	적극적인 한국의 장학제도를 흡수
연구참여자4	남	24	베트남	무	4급	적극적인 한국의 장학제도를 흡수
연구참여자5	여	23	베트남	자매	3급	외국어에 관심
연구참여자6	남	22	베트남	고향형	3급	미래의 한국회사 취업, 좋은 직업(집단유학)
연구참여자7	여	22	베트남	고향오빠	4급	자기계발, 향후 장사(집단유학)
연구참여자8	남	25	베트남	고향동생	3급	미래의 한국회사 취업, 좋은 직업(집단유학)
연구참여자9	남	22	베트남	누나결혼	3급	미래의 한국회사 취업, 좋은 직업(가족연계)
연구참여자10	남	22	베트남	누나결혼	동대3급	누나결혼으로 부모모두 한국으로 이주된 가족연계 형으로 한국적응
연구참여자11	남	22	베트남	이모	3급	이모결혼으로 가족일부 호주, 자신은 한국(집안연계)

연구참여자12	여	21	베트남	남친	4급	남자친구로 (현지연계)
연구참여자13	남	22	베트남	형	4급	형은 일본으로 자신은 한국으로 유학(가족 이주)
연구참여자14	남	24	베트남	무	4급	미래의 한국회사 취업, 좋은 직업(자신목적/연령)
연구참여자15	남	25	베트남	무	5급	미래의 한국회사 취업, 좋은 직업(자신목적/연령)
연구참여자16	여	23	중국	무	5급	미래의 한국회사 취업, 좋은 직업(집단유학)
연구참여자17	여	23	중국	연애	3급	자존심, 활발한 성격
연구참여자18	여	24	중국	무	3급	댄스 동아리 활동, 한국 학생들과의 적극적 교류
연구참여자19	남	22	중국	동거	4급	새로운 생활안정과 한국의 장학금
연구참여자20	여	23	중국	동거	4급	새로운 생활안정과 한국의 장학금
연구참여자21	남	24	중국	동거	4급	신입생 초기부터 이성친구와의 협력적 대학관계
연구참여자22	여	21	중국	동거	4급	신입생 초기부터 이성친구와의 협력적 대학관계
연구참여자23	남	22	중국	무	3급	급격한 한국어 능력 향상, 적극적인 한국어 공부
연구참여자24	남	22	중국	무	4급	선배들, 동기들과 많은 대화, 동아리 참여, 매일 1시간30분씩 듣기 읽기공부
연구참여자25	여	23	중국	연애	5급	언어습득, 적극적인 알바,
연구참여자26	남	22	중국	목표	4급	드라마 한국영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듣기 훈련
연구참여자27	여	21	중국	친구	3급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활용.
연구참여자28	남	23	중국	무	4급	수업시간에 적극적 참여, 드라마 한국영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듣기 훈련
연구참여자29	남	21	중국	무	4급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활동
연구참여자30	남	22	중국	연애	4급	수업, 숙제 등 학교활동에서 여친과 도움을 주고 받음.(현지연계)
연구참여자31	여	23	중국	연애	3급	신입생 초기부터 이성친구와의 협력적 대학관계가 외국대학의 초기 적응에 도움을 줌
연구참여자32	여	22	중국	자매	4급	신입생 초기부터 자매와의 협력적 대학관계가 외국 대학의 초기 적응에 도움을 줌-특히 내성적인 성향의 경우에는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침
연구참여자33	여	21	중국	자매	3급	신입생 초기부터 자매와의 협력적 대학관계가 외국 대학의 초기 적응에 도움을 줌(집단이주/가족연계)
연구참여자34	남	23	몽골	사촌 형제	4급	사촌들이 동국대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있어 심리적 안정감이 큼 기계분야에 관심(집단이주)
연구참여자35	여	32	몽골	가족, 사촌	3급	남편, 자녀, 사촌들이 한국에 머물고 있음 (집단이주)
연구참여자36	여	20	대만	무	4급	적극적 목적
연구참여자37	남	24	인도	불교계	5급	뚜렷한 목표,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자(불교계의 지원)
연구참여자38	여	24	우즈베키스탄	이주	3급	엄마의 결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3세 (가족이주)
연구참여자39	남	26	태국	종교	3급	태국과의 종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장점을 배우고자
연구참여자40	여	29	새터민	탈북	6급	어머니의 탈북이후 연이어 탈북에 성공한 새터민으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자기계발에 열심 (가족이주)

## 2.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특징적 맥락

### 1) D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현황

D대학의 사례를 볼 때, 실제한국어 능력에 대한 특징을 1차 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국가별, 남녀별로 정리한 자료를 보면, 2015년도의 외국인 학생의 남녀별 언어영역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중하 및 하 영역에 비슷한 비율의 남녀 학생들이 존재한다. 반면 2016년도에 이르면 외국인 남학생의 상당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어 능력에서 중하 및 하에 머문 비율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최현실 2017, 19-41). 특히,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 중국인 남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하되며, 2018년에는 중국인 남학생의 한국어능력 저하가 정형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원인은 한국어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입학한 경우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들 스스로가 언어부족 외에도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그 동안의 면담과정에서 나타난 유학생의 관심영역을 볼 때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유학생생활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어려움을 더 느끼며 대인관계의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지식 관리 영역을 넘어서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함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공 선택이나 대학생활 적응 등에 대한 상담과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적 차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 2) 개방코딩

개방코딩(open coding)은 인터뷰 자료를 각 문장별로 분석하여 하위범주와 범주를 구분해 내는 작업이다. 이때 하위범주와 범주를 구성하는 개념들은 ‘인과적 조건(중심현상을 발생시키는 선행적 원인으로 해석되는 조건)’, ‘맥락적 조건(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조건들의 집합 혹은 양상)’, ‘중심현상(연구결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적 현상, 관념, 사건)’, ‘중재적 조건(보다 폭넓은 구조적 상황으로 현상의 맥락 안에서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개별 조건 하에서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것을 다루기 위해 현상을 다듬어 가는 개인 또는 집단의 전략으로 주로 중심현상을 통해 획득된 범주들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전략과 습관적 행위 등 후속 조치)’, ‘결과(앞의 단계들에 의해 의 도적, 비의도적으로 형성된 광범위한 결과)’라는 패러다임에 따라 구성된다(강복·손승혜 2018; 정재민 2010).

이 연구에서는 개방코딩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41개의 개념과 21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를 패러다임 요소별로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서 ‘낮섬의 극

복’, ‘자존감 찾기’ ‘자기계발’ 등의 범주가 중심현상인 ‘대학생활에 충실하기’를 일으키는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TOPIK 급수가 높아서 수업시간에 교수의 설명을 반 이상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경향과는 차이가 있다.

첫 번째 경향은 언어장벽, 소통의 장벽 속에 갇히는 것이다.

“교수님이 말하는 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말을 할 수 없어서 갑갑합니다. “학교에 다니고는 있지만 교수님의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시간만 때울 뿐입니다.”

두 번째 경향은 무기력의 연속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친구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지만 친구들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부분 몰라요” “대학에 온 이유도 무엇 때문에 대학을 다니는 지도 잘 몰라요. 그냥 다녀요.”

맥락적 조건으로는 ‘경제적 부담 극복’, ‘목표 찾음’,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 ‘학교생활에 익숙해짐’이 도출되었다. 2017년 2학기부터 중국유학생들 보다 다수를 차지하는 베트남 학생들은 학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대 다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학비하고 생활비가 너무 많아서 알바 해야 해요”, “학비, 생활비 비싸요. 알바 해야 해요” “힘들어요, 학비 좀 비싸요.” “항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서 공부하는 시간이 없고, 많이 힘들어요.”

베트남 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그러나 일부 베트남 학생들은 장학금의 혜택을 받으며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학생들이 있다.

반면 중국학생들은 경제적 부담감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부모님께 돈을 받는 게 부끄럽게 생각되어요. 생활비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책임지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알바를 하여 같이 알바를 해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재미있어요.”

한편, 베트남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수록, 중국학생은 낮섬에서 벗어날수록 모두 목표가 뚜렷해지고,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이나 학교생활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심현상 형성의 중재적 조건으로는 ‘협력적 인간관계 형성’ ‘수업시간 이해력 상승’ ‘꾸준한 한국어 공부’ 등이 도출되었다.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중국 및 베트남 학생 모두 매일 두 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하며 수업시간의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점은 유사하였

다.

<표 4> 외국인 유학생 연구 참여자 경험의 범주-하위범주 개념

패러다임 요소	개념	하위범주	범주
인과적 조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 유학 왔다. 낯선 땅에서 많이 외롭다. 외국이라는 자유공간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한국이 좋아요 나이가 많음 자신에 대한 책임 감 부자가 될 거예요	낮섬의 극복 자존감 찾기 자기계발
맥락적 조건	한국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 이 있다. 한국문화를 이해한 후에 한국 친구를 사 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가족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경제능력이 없어서 알바를 하게 되었다. 알바를 하는 것으로 인해 언어능력이 늘 어나고,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 대학의 학사제도를 이해 적극적으로 대학의 장학제도를 흡수함 미래 한국회사 취업 한국어 공부 방식을 터득함 뚜렷한 장래희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시도	궁금한 문제 해결 사고 싶은 것은 많 고 목표에 대한 시도 고깃 집에서 알바 내 미래에 대한 회 망	경제적 부담 극복 목표 찾음 한국어에 대 한 자신감에 대 학 생활에 익 숙해짐
중심현상	대학생활에 충실하기 내 삶은 내 스스로 책임진다.	수업에 열심히 참 여해요	대학생활 충 실하기
중재적 조건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뉴스 등을 통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를 공부한다. TOPIK 급수를 따다. 가족으로 인해 생활 장소가 바뀌었다. 이성친구와 협력적 대학 관계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 수업과제에 충실 진공에 대한 확신 알바를 함	매일 두 시간씩 한 국어 공부 도움이 필요해 함께할 수 있는 친 부 수업시간에 교수 님의 말씀을 반이 상 이해 여유있는 알바	꾸준한 한국 어 공부 협력적 인간 관계 형성 수업 시간이 해력 상승
작용/상호작용 전략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사용하 게 된 facebook 등의 어플을 통해 가족 및 친구와 소통한다. 가족과 친밀한 관계 유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 한국어 언어능력의 상승 대학 내에서 인간관계가 넓어짐 이성 또는 동성 친구와 동거	외로움이 느끼지 않게 하는 소통 한국어(한국문화) 이해능력 상승 친밀한 이성/동성 과 동거	정서적 안정 한국어 능력 우호적 인간 관계 형성
결과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게 되었다. 한국친구를 사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 게 되었다. 한국학생과 적극적 교류 장학금 획득 자존심의 상승 낯선 곳에서 외로움을 극복했다.	TOPIK급수가 높 아짐 외롭지 않음 경제적 여유 한국친구	적극적 대학 생활 외로움의 극 복

반면, 협력적 인간관계 형성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다수의 베트남 학생들은 형제, 자매가 함께 유학을 오거나, 사촌 또는 가까운 이웃이 그룹으로 함께 유학을 오거나, 한국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등 한국생활에 낯섬을 덜 느낄 수 있는 매우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혼자 유학을 온 경우라도 민족적 유대관계가 중국학생들보다 더 돈독하여 서로 돕고,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유학생들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 즉, 중국 및 베트남 유학생들이 고향을 떠나 한국이라는 낯선 지역에서 자취나 하숙,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에 직면’하는 환경에서 가족 및 친구, 선후배 간의 지원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facebook, 위챗 등의 어플 등을 통해 가족 및 친구와 소통’ ‘친밀한 이성/ 동성과 동거’ ‘한국어(한국문화) 이해능력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유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가족들과 통화하며, 부모님의 충고와 위로를 받고 있으며, 대학생활을 함께하는 친밀한 동성과 이성과의 동거를 통해 외로움과 한국문화에 대한 낯섬을 극복하고 있었다.

“여자 친구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고”, “남자 친구가 있어 든든합니다. 수업을 같이 듣고 같이 있다 보니 외롭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언니랑 함께 대학에 입학해서, 외롭지 않아요.” “사촌 형과 사촌 동생 모두 우리학교에서 수학을 해요. 함께 공부하며 궁금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결과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며, 대학생활에 충실해지고, 점차 한국어 이해 능력이 향상되며, TOPIK급수가 높아지고, 장학금을 획득하기도 하며 경제적 여유를 누리게 되는 공통현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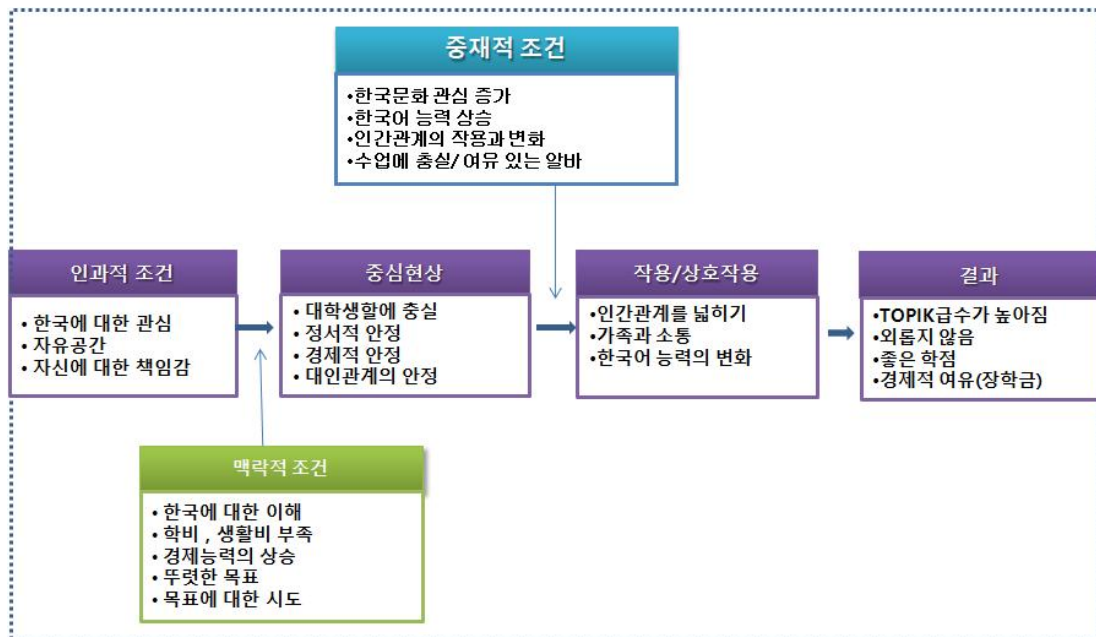
### 3)축코딩

개방코딩에서 나타난 여러 맥락에서 공통된 현상을 조합하여 하위범주로 축코(axial coding)딩이 이루어진다. 축코딩은 중심현상이라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여러 하위 범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단계이다. 즉, 축코딩은 중심현상을 둘러싼 조건과 전략, 결과 등 전 과정의 현상이 하나의 모델로 통합되어 개념화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개방코딩 단계에서 도출된 추상화된 하위범주와 범주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연결시켰다.

아래 [그림1]을 보면 중심현상인 ‘대학생활에 충실하기’로 추상화될 수 있는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인과조건, 맥락/매개조건, 작용/상호작용과 결과라는 각 패러다임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앞에서 시행한 개방코딩의 결과로 도출된 각 하위 범주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 유학생들은 대인관계, 정서 및 경제적 안정이 잘 되어 차츰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2-3학년을 진학하는 학생이다.



[그림1]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패러다임 모델

이들 유학생들은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독립을 준비하며,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며, 목표를 위해 자기계발을 하는 특징이 보인다.

대학생활 부적응을 경험하며 이탈하는 학생들은 대학생활이 주는 자유를 어떻게 수용하며 자율적으로 통제해 나가야할 지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 다니고는 있지만 목표가 없다보니 시간만 때울 뿐입니다.”

반면,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집단에서는 학교의 학사제도를 잘 이해하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과제도 충실히 하려 하구요”, “학교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또는, 한국 드라마·영화를 통해 한국말에 대한 듣기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자신

의 목표를 뚜렷이 가지는 경향이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지속적으로 들으니 듣기가 잘 되는 걸 느끼고 있어요. 재미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 드라마, 한국영화 등을 통해, 한국말을 많이 익히고 있어요.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요”, “매일 두 시간 씩 한국어 읽고 쓰는 공부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지진으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싶어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작은 국제 무역을 하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회사를 경영하고자 해요.”

#### 4) 선택코딩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코딩의 마지막 단계로서 앞서 기술한 이야기 윤곽을 좀더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중심범주를 도출하고 이론을 통합시켜 정교화하는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8). 즉, 앞에서 실시한 개방코딩과 축코딩의 누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생성해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란 연구의 핵심주제로 일반적으로 서술적으로 제시되었던 이야기 윤곽(story line)이 동명사화된 문장으로 응축된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의 경향과 경제적 관계 사회적 관계, 정서를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선택코딩은 개방코딩과 축코딩의 결과를 통해 얻어진 중심 현상과 관련 범주들의 결합을 통해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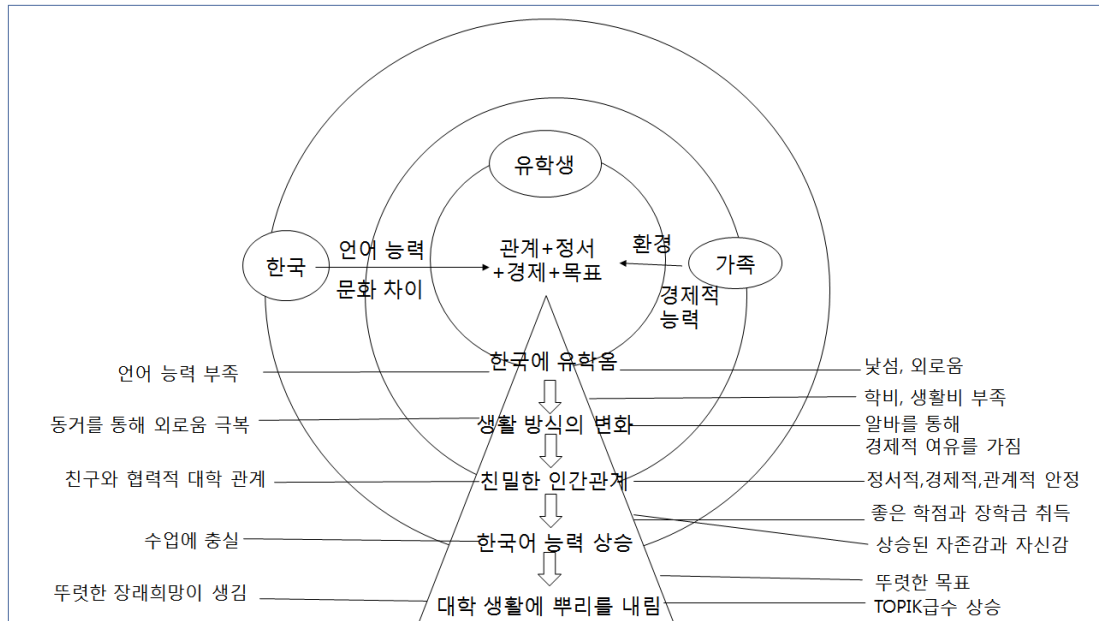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 단계를 거쳐 도출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의 핵심범주로는 ‘외로움의 극복’,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면담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일관되게 언급되었다.

“부모님이 자주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고 한국유학생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많이 줬습니다.” “외로울 땐 친구 만나고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합니다.”, “가족이 보고 싶을 때는 페이스북으로 부모님과 통화합니다.”, “부모님과 항상 통화해서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 때, 포기하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하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함께 지내는 친구가 항상 학교생활하고 한국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나의 외로움을 가장 달래주는 사람은 룸메이트입니다. 우리 같이 살고, 아르바이트도 같이 합니다.”, “이성친구랑 같이 공부하고, 밥 먹고, 주말에 놀러가고 해서 외롭지 않아요.”, “동성친구랑 같이 공부하고, 놀러가고, 축구하고 해요.” “한국어 잘 못해서 불편해요. 한국어 잘하면 편의점 같은데서 편한 알바를 해요”. “한국어가 늘어서 고깃 집에서 알바를 안 하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요”

심리적, 지리적 거리는 물론 언어 장벽까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생활을 통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간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친밀감과 친구나 이성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했을 때 또한 장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또한, 정서적 안정과 함께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얻는다.



[그림 2]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상황모형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학비 및 생활비에 경제적인 부담감을 적게 받을수록 수업에 충실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베트남 학생들 중에서도 대학생활을 잘 하는 학생은 한국어 능력 시험인 TOPIK 급수를 올리고, 학교성적을 잘 받도록 노력하여 등록금의 혜택을 많이 받아 학비의 부담을 낮추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 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면 학교의 외국인 학생에게 주는 다양한 장학혜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알바 등 경제활동을 줄이고, 대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학사지도 교과목에서 외국인 전담반을 운영하며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사례 중에서 적극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보였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체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의 일반적 경향은 2015년도에 비해 2018년의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능력은 중국 남학생의 경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는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외국인 유학생의 주요관심사는 남녀 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정서적 안정을 위한 대인관계 형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한국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학사제도 외에도 공부방법 및 시험준비 등 구체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과 베트남 유학생 간에 유학생들의 초기적응의 미시적 행태에 또 다른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베트남 학생은 형제나 집안 간 유대를 통한 정보교류가 원활하고 또 그로 인해 서로 격려하고 도와서 미진한 유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등 타지에 유학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광역의 정보교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유학생의 경우 상호 유대보다는 독자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양상을 노정한다. 이는 인구 축소를 위한 1인 출산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형제간의 유대가 약화되고 ‘황띠(황제의 자식)’ 의식에 기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 및 태도에 대해 진행되었던 한국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집단의 현상적 특징은 다음 세 가지 범주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한국의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집단은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대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 언어장벽, 소통의 장벽 속에 갇히거나, 무기력의 연속 상태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로움에 대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학생에 비해 베트남 학생은 가족 및 친인척이 함께 유학을 하여 초기부터 심리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원활한 대학생활을 유지하거나, 대학생활에서도 친구 선후배 간의 관계가 매우 잘 형성되어 있어 대학생활의 초기 적응에서 느끼는 낯섬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중국학생과 베트남 학생모두 대학생활 적응의 양상에서 낯섬을 극복하는 방식은 한국 드라마·영화를 통해 한국말에 대한 듣기 연습을 하거나,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문화적 친숙감을 도모하거나, 이성 및 동성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도모하는 방법을 통해 외로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보인다는 점이다.

두 번째 범주는 한국의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집단에서는 학비 및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적게 받거나, 학교의 외국인 장학제도(TOPIK 급수와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외국인학생 등록금의 혜택이 많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는

학생들이다. 이들 학생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제반 제도를 익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장학금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범주는 한국의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분명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 이들 외국인 유학생들은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독립을 준비하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기계발을 하는 특징이 보인다.

지난 10여 년 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위상이 커지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대학에서 주요한 학생구성원이 되고 있으며, 대학의 재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대학생활의 적응과 학업성취는 단순히 학위를 취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향후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지니며 출신국과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에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을 통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학습지원을 하는 것 외에도 개인적인 생활지원에서부터 개인 심리적인 정서적 측면의 고려와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장학 및 생활혜택을 함께 마련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복·손승혜. 2018. 중국팬들의 한국과 중국 아이돌 그룹 팬덤 구성과 활동방식 비교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33(2): 5-43.
- 구본석. 2017. “유학생 공통 교육과정 운영 및 학습 요구 분석/ 상담.” 동국대학교 국제교류처 국제학생 교육·관리 세미나(경주. 2월 22일).
- 권은영. 2013. “외국인 유학생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양교육연구』. 7(2): 373-398.
- 김경환·신영지. 2014.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학습 과정: 성균관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6): 169-196.
- 나동석·강석화. 2010.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화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7): 21-46.
- 박순영. 2016.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4(2): 72-102.
- 박은경. 2011.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113-139.
- 오주희. 2017. “대구가톨릭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교육 사례.” 동국대학교 국제교류처 국제학생 교육·관리 세미나( 경주. 2월 22일).
- 이영준. 2013. “외국인 유학생의 발표 능력 자가평가지표 개발 연구.” 『교양교육연구』. 7(6): 589-616.
- 이유경. 2017. “국제학생 전용강좌의 운영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국제교류처 국제학생 교육·관리 세미나( 경주. 2월 22일).
- 전요한·박지순. 2016.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담화인지언어학회. 서울. 11월.
- 정재민. 2010. 청소년 팬덤 현상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1(3): 91-119.
- 주희정. 2013.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제연구』. 36: 135-159.
- 최현실. 2017. “학사지도 교과목의 외국인반 운영 및 사례.” 동국대학교 국제교류처 국제학생 교육·관리 세미나( 경주. 2월 22일).
- 출입국관리국. 2018.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9월호.” [http://www.moj.go.kr/doc\\_html/viewer/skin/doc.html?fn=bd2c20f42f438c28690ea844e7a82840&rs=/doc\\_html/viewer/result/201808](http://www.moj.go.kr/doc_html/viewer/skin/doc.html?fn=bd2c20f42f438c28690ea844e7a82840&rs=/doc_html/viewer/result/201808). 2018/09/20.
- 하채현·제혜금. 2016. “중국 유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어 요인과 교수 학습 방법 요인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35: 7-32.
- 홍효정 외. 2013.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학습전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 『교양교육연구』. 7(6): 561-587.

## Non-Korean References

- Chenitz, W. Carol and Janice M. Swanson. 1986. *From Practice to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Berry, John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1): 5-34.
- Charmaz, Kathy.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 Creswell, John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 Corbin, Juliet and Anselm Strauss,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3rd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 Glaser, Barney G.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Advances in the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Glaser, Barney G, and Anselm A. Strauss, 2009.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Brunswick NJ: AldineTransaction.
- Hovey, Joseph D. and Christina Magaña. 2000. "Acculturative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Mexican Immigrant Farmworkers in the Mid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2 (3): 119-131.
- Lewthwaite, Malcolm. 1996. "A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Perspectives on Cross-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19 (2): 167-185.

##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Choi Hyeon-sil. 2017. "Foreign Student Class Management and Case Study in the Bachelor Teaching Curriculum." Seminar on International Student Education Management, Dongguk University International Exchange, Gyeongju, Korea, February 22, 2017.
- Chu Hui-jung. 2013.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Education Problems Research*. 36: 135-159.
- Ha Chae-hyeon and Zhu Hui-qin. 2016. "Factors Affecting the Study of Chinese Students - Focusing on Korean Factors and Factors of Teaching and Learning." *Journal of Korean Culture* 35: 7-32.
- Hong Hyo-jong et al.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Learning Strategic Program for the Adaptation of Foreign Students to College Life." *Liberal Education Research*. 7 (6): 561-5.
- Immigration Bureau. 2018.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Statistical Monthly Report, September." [http://www.moj.go.kr/doc\\_html/viewer/skin/doc.html?fn=bd2c20f42f438c28690ea844e7a82840&rs=/doc\\_html/viewer/result/201808](http://www.moj.go.kr/doc_html/viewer/skin/doc.html?fn=bd2c20f42f438c28690ea844e7a82840&rs=/doc_html/viewer/result/201808). Accessed 20 September 2018.
- Jeon Yoo-han and Park Ji-soon. 2016. "Analysis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Seoul, November.
- Jeong Jae-min. 2010. "A Grounded Theoretical Approach to the Youth Fandom." *Korean Youth Research* 21 (3): 91-119.
- Kang Bog and Son Seung-hye.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Chinese Fans in Korea and China Idol Group Fandom." *Media, Gender and Culture* 33 (2): 5-43.
- Kim Kyoung-hwon and Sin Yeong-ji. 2014. "Intensive Korean Language Course for Foreign Students: Focusing on Sungkyunkwan University." *Liberal Education Research*. 8(6): 169-196.
- Ku Bon-seog. 2017. "Analysis and Consultation on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Curriculum and Learning Needs." Seminar on International Student Education Management, Dongguk University International Exchange, Gyeongju, Korea, February 22, 2017.
- Kwon Eun-young. 2013. "Development of Liberal Arts Education Curriculum for Foreign Students." *Liberal Education Research*. 7 (2): 373-398.
- Lee Yoo-kyung. 2017. "Oper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International Student

- Lectures." Seminar on International Student Education Management, Dongguk University International Exchange, Gyeongju, Korea, February 22, 2017.
- Lee Young-joon 2013. "Development of a Self-evaluation Index for Foreign Students." *Liberal Education Research* 7 (6): 589-616.
- Na Dong-seok and Kang Seok-hwa. 2010. "The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Cultural Adaptation Ability of Chinese Students: Focusing on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Youth Studies* 17(7): 21-46.
- Oh Joo-hee. 2017.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Education for Foreign Students." Seminar on International Student Education Management, Dongguk University International Exchange, Gyeongju, Korea, February 22, 2017.
- Park Eun-kyung. 2011. "A Study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mmunity Adaptation of Foreign Students: Focusing on Daegu and Gyeongbuk Regional Universities." *Modern Society and Multiculturalism*. 1 (2): 113-139.
- Park Soon-young. 2016. "Adaptation of College Life to International Students: Focusing on Social Relations." *Community Studies*. 24 (2): 72-102.

